

종합

# “광주 관광레저복합타운 충분히 성공할 것”

## 광주온 이 참 관광공사 사장



“광주·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마케팅 기법 그리고 이들 관광자원을 명품화·고급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창(56)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26일 광주 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시·도 관광국장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이 사장은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관광레저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광주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

력 향상 방안’에 대해 강연 한 이 사장은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복합타운은 도시의 산업전력 방향이 제조업에서 관광·레저 등 고급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잠재력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만큼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미식가’라고 소개한 그는 광주·전남지역의 발미로 애자와 오리탕, 한정식 등을 꼽고, 재료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입맛을 다시기도 했다.

“음식 맛을 보기 위해 광주·전남을 자주 찾고 있다”는 그는 “이 같은 발미를 이용한 고급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의 기호에 맞는 음식 배치부터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산업 역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마케팅을 통한 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관광 시스템은 소극적이며, 단편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기술 및 교육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는 예기다.

이 사장은 “매년 단일 장소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며 “타임스퀘어에 가보면 광고판이 어찌 별다른 것도 없지만, 그곳에 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 작용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 사장은 이날 강연 후 해남 오시안노관광단지(옛 화원관광단지)를 방문한 뒤 설명했다.

이창(56)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창(56) 한국관광공사 사장

# “안중근 의사 유해 모셔오는데 최선”

## 이대통령, 日·中과 협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안 의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몰바친 애국자이며,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화합과 평화를 이룩한 시대의 선각자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종스러운 것은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나 고국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하셨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

겠다”면서 “늦었지만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잘 협조하는 등 유해를 모셔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다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날 국내외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겨레의 등불, 평화의 햇살’이란 주제로 열린 안중근 의사 추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인사와 안 의사 유족, 광복회원, 시민 등 2천여 명이 현화 및 분향, 안 의사 약전 낭독, 추모 공연 등을 가진 뒤 광화문 광장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함평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터에서는 동상 건립식이 이어 안 의사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 복원하고, 직위를 ‘대한의군 대장’으로 1계급 특진시키기 위한 국회청원 결과를 추진하는 ‘대한의군 대장 안중근 장군 추인식’을 가졌다.



함평군과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26일 오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터에서 ‘안중근 장군 동상 제막행사’를 열었다.

# 日 강제동원 노무자 피해 보상 길 열려

## 日 외무성 민간인 17만명 공탁기록 넘겨

일제때 강제 동원되고도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6일 오전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분 17만5천명명(총 공탁금액 2억7천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행정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 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탁서 부분 접수 기록을 계기로 노무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판정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으로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 분석, 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탁금 자료 인수로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던 대다수 노무 동원자들의 피해 실체, 미불임금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사실 미처리 건 10만여건, 미수금 지급 관련 4천여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민소득 1만7천달러

## 2년연속 감소... 환란후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환율 상승 여파로 1만7천달러대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0.2%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은 하지만 올해는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1인당 GNI도 다시 2만달러대를 무난

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2009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1만7천175달러로 2008년보다 2천121달러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4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1인당 GNI는 2004년 1만5천82달러, 2005년 1만7천531달러, 2006년 1만9천722달러, 2007년 2만1천659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2008년 1만9천296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 시설

## 공직사회 ‘도덕 불감증’ 해도 너무한다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度)를 넘어가고 있다. 최근 교육감 공선을 틀린 전남도교육청의 복지부동·무사안일이 말썽을 빚더니 이번에는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기업이 후원하는 ‘도사벽지 어린이 영어캠프’에 공무원 자녀와 도시 어린이를 무더기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개최한 ‘도사·벽지 어린이 초청 영어캠프’에 전남도를 통해 지역 어린이 200명을 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캠프 참가자 가운데 65명이 도사·벽지 어린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3명 중 1명이 무자격자인 셈이다.

고흥군의 경우 11명 가운데 8명이 군청 등 공무원 자녀로 채워졌고 완도군은 33명 중 3명이 군청 공무원 자녀였다. 이밖에 여수, 순천 등 상당수 시·군이 무자격 어린이를 포함시켰다.

이번 캠프는 기업이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담초 취지를 퇴색시킨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도사·벽지 어린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는가. 이라고도 할세로 월급을 받는 공복(公僕)임을 자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한 토착·교육비리 사범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공무원이었다.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것이다. 공직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특히 동심(童心)을 멍들게 한 이번 영어캠프 사건은 전말을 낱알이 파헤쳐 관계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 전남이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라니

전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차량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광주는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11위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교통안전조사’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전년보다 14명 많은 497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7.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서울시(1.7명)보다 4.3배 많고, 전국 평균(2.31명)보다는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반면 광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보다 26명이 감소한 114명으로,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31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는 2008년 대비 사망자 수가 18.6%나 줄었으며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개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최근 4년간 교

통사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가 각 분야별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고 시민들이 이에 적극 참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이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보여준대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선이다.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이 과속과 음주운전, 운전부주의 등 운전자의 의식 결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속 방지를 위한 교통지도와 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 굴곡이 심한 도로의 선형 개선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외지인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운전하려면 과속이나 끼어들기 등 ‘운전 귀신’이 돼야한다고 혀를 내두르는 것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 대우건설 FI 출자전환 약속서 제출 금호산업 워크아웃 탄력

채권단 2조2천억 출자 전환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채권단에 출자전환 약속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 다음주 중 2조2천억 원의 출자전환을 완료해 상장폐지를 피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말까지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26일 리본버터러스 등 모든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출자전환 약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금융회사를 상대로 출자전환 등 금호산업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채권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29일로 연기됐던 금호산업의 이사회는 이날 오후 7시에

개최돼 출자전환 안건을 확정한다. 채권단은 안건이 통과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함으로써 금호산업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오는 31일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해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로 했다. 채권단은 내주 중에 금호산업에 대해 2조2천억 원의 출자전환을 완료한 뒤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갑자기 줄어든 채권금에 대해 2009년 7월 31일 기준으로 12.7%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9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이사회에서 출자전환과 감사(자본감소) 외에도 주주 계획, 자산 매각 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논의기로 했다.

# 빛日만평

- 김중두



그것도 말실수(?) 아닐까요?!

# DJ정신 계승 모임 ‘행동하는 양심’ 출범

## 이해동·백낙청 등 200여명 참석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40~50대 참모들을 주축으로 한 ‘김대중 정신’ 계승모임 ‘(사)행동하는 양심’이 26일 오후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해동 목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모임에는 김대중·김대근·김한정·조순용·최경환씨 등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을 비롯해 유원식·이인영 전 의원,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등 과거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거나 그의 정치철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종교계·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또 한승헌 변호사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

수,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 함세웅 신부, 민주당 신건 의원,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등이 고문 또는 상임고문을 맡았다.

‘행동하는 양심’은 창립선언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인이 존경하고 경청했던 지도자였다”며 “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주·평화·개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단합과 연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김대중 배우기’ 강좌 및 캠프, 독서클럽, 학술심포지엄 등을 비롯해 김대중 인권센터, 김대중 리더십센터, 김대중 정책연구회, 국제교류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아시아항공 사내 이사 기옥·한창수·류광희 선임

아시아항공은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옥 전라경영본부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관리본부장, 류광희 여객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기존 이사였던 박삼구 명예회장, 박찬범

그림 회장, 박찬구 전 화확본부 회장은 채권단과의 그림 정상화 방안에 따라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림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박삼구 명예회장은 금호타이어, 박찬구 전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아시아나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로 박영철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재선임하고, 이상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체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